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463
----------	------

발의연월일 : 2024. 9. 30.

발 의 자 : 이헌승 · 김선교 · 김도읍
강선영 · 서일준 · 서지영
김승수 · 박덕흠 · 고동진
유영하 · 정성국 · 윤상현
신성범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이나 불출석하여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고, 그 결과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송의뢰인이 재판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신의성실의무 등) ① 변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 사건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재판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9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임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4조의2(신의성실의무 등) ①</u> <u>변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u> <u>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p> <p><u>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u> <u>사건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u> <u>지하고, 재판 진행 경과를 지체</u> <u>없이 알려주어야 한다</u></p>
<p>제91조(징계 사유) ① (생 략)</p> <p>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 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91조(징계 사유)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u> <u>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u> <u>우</u></p>